

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만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 ● 본필자: 우 110-140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-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'길은 문'은 나에게 담당자 양 ● 인터넷: www.hannaum.org 또는 한마음선원 ● FAX: (031)470-3116



대행 스님

## 길은 문은 나에게

제 798호 현대불교  
2010년 8월 25일(음 7월 16일) 수요일 / 불기 2554년

법공양 페이지

# 25

# 모두가 공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

사회자: 큰스님께서 외국에서 돌아오셔서

아직 여독이 덜 풀리셨습니다만 저희들 법행제를 위해서 피로를 무릅쓰시고 이렇게 법회에 응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법문은 생략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**질문자(남):** 스님께서 법문 중에 마음으로 집에도 가 볼 수 있고, 또 미국에도 가 볼 수 있고, 다른 우주에도 가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. 그런데 마음으로 집에 가본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을 회상해 내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스님께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고 볼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이 안가 본 미국이나 우주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보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.

**큰스님:** 그러니까요, 이렇게 마음공부를 하시라고 이끌어 드리는 원인이 바로 그렇습니다. 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. 내가 직접 실천을 하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선장과 현재 재귀, 내가 통해야 됩니다. 통해야 그것을 잡고 볼 수 있고, 할 수 있고, 갈 수 있고, 가고 음이 없이 가고 볼 수 있고, 보는 사이 없이 볼 수 있고, 듣는 사이 없이 들을 수 있고,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상대방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, 각각각종 가지각색의 모든 종류를 같이 이렇게 응應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.

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안으로 봐야 보는 것이지,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지요. 심안으로 봐야 하고, 심인의 귀로 들어야 하고, 심인의 신축동, 즉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음을 알아야 된다. 그리고 아는 사이가 없이 알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심안의 내 선장의 주정자를 떠 주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늘의 기둥을 접어야 된다는 얘깁니다. 쉽게 말해서, 내 심안의 기둥은 하늘과 진리가 상통이 돼 있고 세상과 모두가 통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잡지 않는다면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견관하죠. 견관하니까 50% 반쪽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.

100% 사는 게 아니고.

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고, 잡고 넘어가야 하고,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. 그래서 부처님께서 “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도리를 알아야 하고, 알기 위해서 너를 믿고 너를 깨달아라. 네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내 나무에서 꽃이 필 수도 없거니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. 또한 제 나무에서 무르익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느니라. 왜냐하면 자기로 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니까 공익이 없느니라.” 하셨습니다. 그러니 공생(共生)이면서 공심(同心)·공용(公用)·공체(供體)·공식화(供食化) 하고 돌아가는 이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가 다 그러하면 말입니다.

그래서 내가 공한 줄 알고, 겸손해지고,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, 자력을 길러라 이거지,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목적이나 처고 염불이나 하고 경이나 읽고 이론이나 케고 이러려면 빗하러 여기 이렇게 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지금 각양각색의 종교가 전부 타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것을 외국에 다 나면서도 보았는데,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저의에서, 제 뿌리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타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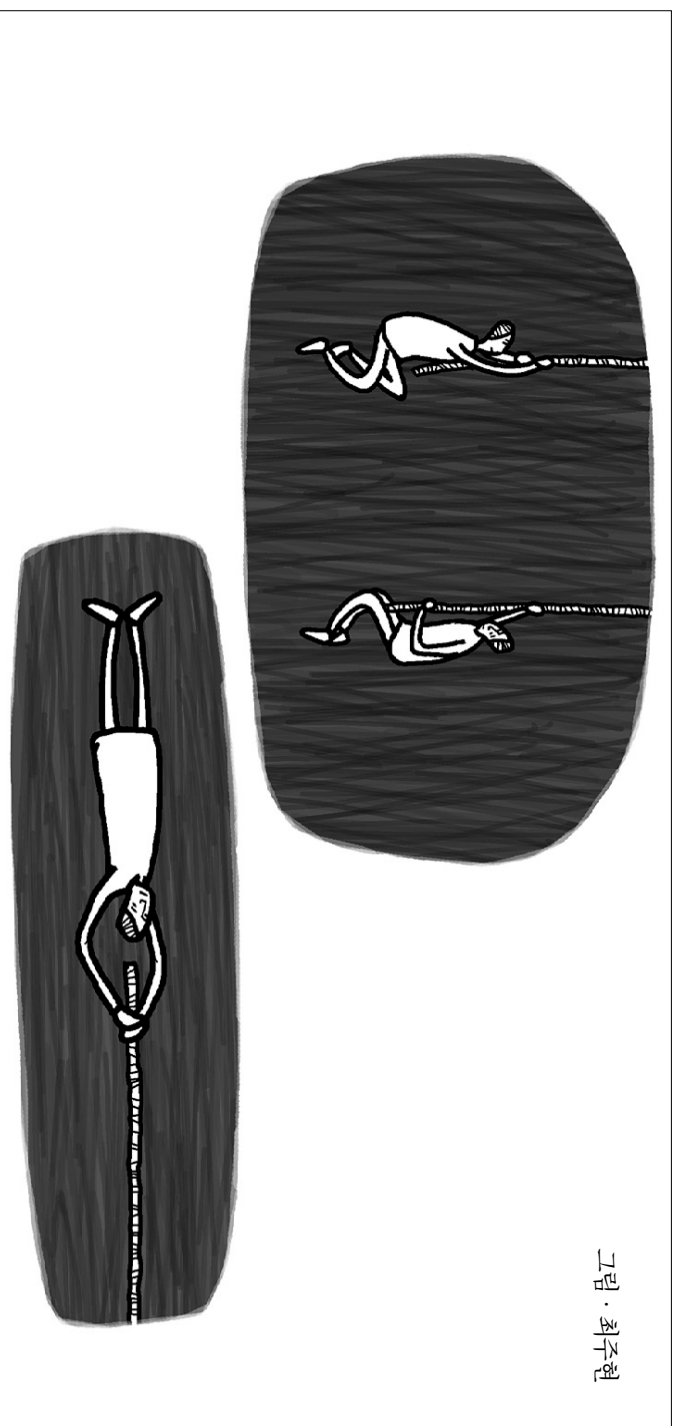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에서, 꼭 이름, 형상 이런 걸로 찾고 있습니다. 그러니 열매나 부끄럽고 열매나 머리색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

그래서 마음의 줄, 그 줄을 바로 받아줄이라 고 일컬어 말합니다. 이 받아줄을 잡지 못한다면, 끈끈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못 볼 뿐만 아니라,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갖다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. 흙탕물이 나와서 이거를 어떡하면 좋을까 하고 내가 아무리 방방방 뛰어도 그 물을 맑은 물로 대치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.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심안의 그 내면세계를 꼭 믿고, ‘그 한 구멍밖에 없어서 그 구멍에서 모두 생사가 한 구멍밖에 없어서 그 구멍에서 모두가 나오는 거니까 그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해라.’고 합니다. 그런데면은 앞서의 입력이 없 어지면서 현실에 지꾸 입력이 되면은 그것이 세롭게 모두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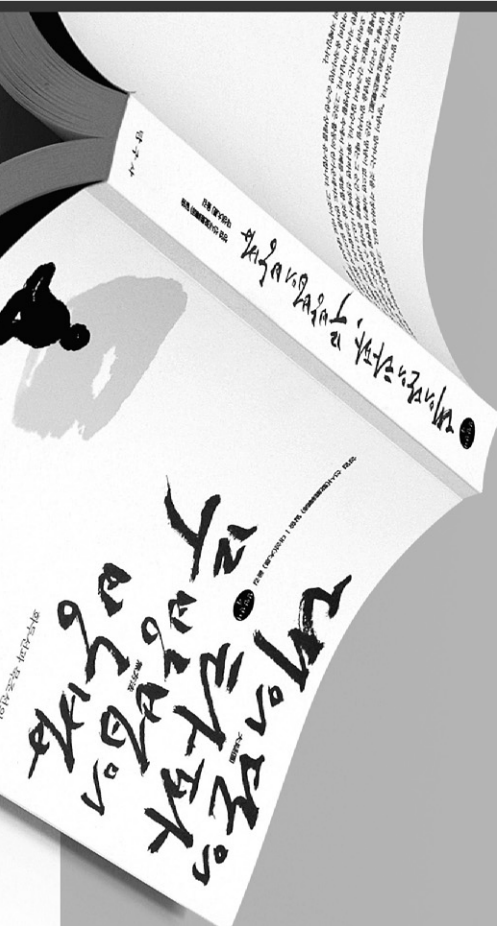
**질문자(남):** 다음은, 책을 보니까 우주 다른 별에는 현재 지구보다 과학문명이 상당히 발전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는 우주선을 3월 만에 만들어서 순식간에 타고 와서 없애 버리고, 또 필요하면 다시 만들고 그러다고 했거든요. 그러면 그 기술을 현재 지구에다가

도입을 할 수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.

**큰스님:** 그것도 마음의 진화가 돼서 마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면,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나 또 두들 아예 마음의 세계는, 정신세계는 무의미하게 생각해 버리고, 지금 현실의 물질세계로만 올라가니까 열매나 복잡합니까? 쉽게 살 수도 있는 것이건만 너무 복잡하던하게, 그냥 사람이 방방 뛰고 온통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러니까 병이 들어 죽게 되고, 삶의 보람이 없 이 이렇게 낙오가 되는 거죠. 그러나 그 도리를 알면 신선하게 살다가 신선하게, 우리가 현 옷 벗어서 빨듯이 그냥 현 옷 벗어서 놓고 아주 세련된 새 옷을 입고서 등장을 하는 거고,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 여기 없어서도 그 도리를 다 행할 수 있으니까요.

그러니 문명 시대기, 다른 게 문명 시대가 아니라 정신세계의 문명 시대가 아주은 겁니다. 지금 시금한 문제입니다. 우리 정신세계가 좀더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 지금 과학을 연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 재료를 지어낼 수 있는 내 자력이 있어야 연구를 해내지, 천만금을 갖다 준대도 그 연구를 못 해냅니다.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

도서출판부구사 전화 (02) 702-3557 팩스 (02) 702-3558 구입처 교보문고, 영풍문고, 알라딘, 예스 24, 윤주사, 주요 불교서점



## 한국불교가 몰랐던 중국(대만) 선불교의 진수!

중국에서는 선종의 맥이 끊어졌고 선종의 정통은 한국에 있다고 믿은 한국 불교도들의 근거 없는 신화였다.

대만을 조사서로 알아 밝혀주는 중국서의 조사이물 석역사사



탐구사

26면으로 계속